제 1 교시

국어 영역

성명

수험번호

SMAKO

- 이 문제지는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 수를 확인하십시오.
-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noqeli에게 있습니다.
- 이 문제지에 대한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중세에는 상상력이 감각과 이성 사이에 위치한 불완전한 기능으로 취급되었다. 인간의 정신 기능에 대한 이해, 상상력의 위상이 급부상하기 시작한 것은 르네상스로 들어서는 16세기이다. 상상력의 관한 논의는 플라톤적 사유에서 처음으로 나타난다.

판타지아(phantasia)는 고대 그리스에서 상상력을 나타내는 용어였고, 이것의 산물인 판타즈마(phantasma) 또한 플라톤 이전에 쓰이고 있었다. 이 용어들이 심리학에서 분석의 대상이 된 것은 플라톤에 의해서이다. 이러한 점에서 플라톤의 대화편 『소피스테스』는 주목을 이끈다. 대화편 중반부에서 판타즈마는 이미지를 모방하는 것과 연계되어 설명된다. 설명의 목적은 모사물을 만드는 기술을 대립되는 두 종류로 나누기 위해서이다. ‘에이카스티케’와 ‘판타스티케’가 그것인데, 단일한 원형을 닮은 일차적 모사물을 에이카스티케라 부른다. 판타스티케는 겉보기에 원형과 닮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차적 유사영상인 환상적 이미지에 불과하다. 플라톤의 『국가』에서 그는 가장 높은 수준의 인식으로 진리와 형상을 다루는 이데아를 제시한다. 감각을 초월하는 추상적 실재나 자연물과 같은 가지적 실재를 그 대상으로 하는 사고나 믿음은 이데아의 모사이므로 이데아로부터 한 단계 내지 두 단계 낮은 것이다. 그렇기에 예술과 같이 기껏해야 모사물에 불과한 상상은 플라톤에게 부정의 대상이 되었다. 플라톤은 이를

㉠ 장인 목수가 실재를 보면서 만드는 모상의 침대와 ㉡ 그 모상을 보면서 화가가 그리는 침대의 이미지로 비유한다. 그에 따르면 침대의 이미지는 모상의 침대보다 한 단계 더 낮고 더 부정적인 것이다. 판타스티케에 의한 판타즈마는 혼란과 기만을 야기하는 미혹된 이미지이기 때문이다.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상상력이 감각을 통해 생긴다고 보았다. 그는 상상력을 의식의 능력 중 하나로서, 기본적으로 판타즈마를 마음에 나타나게 하는 능력이라 정의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과 마찬가지로 상상력을 감각, 사고, 의견과 구별하면서도 ㉢ 상상력을 감각과 의견의 구성물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플라톤과 달랐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인간의 정신에서는 지각이 시작되어 외부 자극을 수용하는 감각 단계가 가장 먼저 일어나게 된다. 그리하여 형성된 형상은 상상력을 통해 그것을 내면화하고 저장할 수 있게 되는데 이 덕분에 우리는 기억이나 꿈과 같은 사고의 재료를 얻을 수 있다. 정신 작용의 마지막 단계는 판단과 추론과 같은 이성의 영역으로, 인식과 사유의 최종 단계에 해당한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상상력은

감각과 사고를 매개하는 영혼의 능력이다. 다시 말해 그것은 지각없이 생성되지 않고, 그것 없이는 믿음이나 의견이 생겨나지 않는다. 이성으로 사유하기 위해서는 판타즈마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중세에 상상력 개념을 심리학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토대가 되었다.

상상력이 예술의 영역에 포섭되기 시작한 것은 16세기에 들어서는 일이다. 그렇다면 고대에 상상력은 왜 예술적 관점에서 강조되지 않았을까? 학자들에 따르면 이 시기에 예술을 특정한 정신적 산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고대인에게 예술은 미메시스, 곧 모방이었다. 따라서 예술가의 마음은 이와 별 관련이 없었다. 다만 르네상스 시기 상상력 개념은 예술가의 자유로움을 강조하는 현대미술의 것과는 거리가 멀다. 즉, 예술가가 작업의 주문자인 메세나의 수락 없이 상상력을 온전히 펼치는 데 한계가 있었으며, 미메시스의 규율에서 완전히 벗어나 왜곡된 이미지를 창출하는 내적 표현의 단계에는 더더욱 이르지 못했다.

1.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중세의 상상력 개념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영향을 받았다.
- ② 고대의 예술가들은 미메시스의 전통에 따라 예술가의 마음을 부차적으로 취급하였다.
- ③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두 상상력과 판타지아를 동일시했다.
- ④ 영혼의 존재를 가정하지 않더라도 인간 의식의 작용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 ⑤ 모방으로 인한 제약에서 벗어나 메세나가 예술적 자유로움을 펼칠 수 있었던 때는 르네상스 이후에 해당한다.

2.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이데아로부터 가장 떨어진 인식 수준을 가리킨다.
- ② ㉡은 자연물의 모사물로부터 두 단계 더 낮은 인식 수준에 위치한다.
- ③ ㉠은 ㉡과 달리 추상적 실재나 가지적 실재를 모방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 ④ ㉡은 ㉠과 마찬가지로 실재가 아닌 허구적 형상을 창조한다.
- ⑤ ㉠과 ㉡은 모두 상상을 통해 판타즈마를 만들어낸다.

3. ㉔의 이유를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지각은 감각보다 항상 먼저 발생하기 때문이다.
- ② 판타즈마가 주어지면 그제서야 사유의 대상이 생기기 때문이다.
- ③ 감각이 부재하면 판타즈마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 ④ 이성만으로는 인간의 정신 작용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 ⑤ 믿음이나 의견을 내면화하고 기억에 저장하기 위해서는 상상의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성인용품이 확산된 이후 인간과 매우 비슷한 모양과 촉감을 재현하는 리얼돌은 현재까지도 여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섹스로봇과 같은 리얼돌은 그 도입 과정에서도 법적 논의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한다는 측면에서 수입 통관이 보류되었지만 이후 리얼돌의 특성상 신체의 사실적 묘사는 필연적이므로 그 적나라함만으로 수입을 제한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에 관해서는 개인의 사적 영역에 국가의 개입이 최소화해야 한다는 해석이 있었다. 반대로 리얼돌과 같은 도구가 인간을 성적 대상으로 만들어 사용자의 욕망 그릇으로 최적화하므로 그러한 인공물의 제작과 사용화를 반대하는 시각도 있다.

리얼돌은 기본적으로 성관계를 위해 만들어진 인공물로 정의된다. 자율적 행위자인 인간과 달리 리얼돌은 사용 주체와 성적 교감이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 사용자 취향에 맞게 설계된 기계 장치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용자의 성적 행위에 도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리얼돌의 본래적 기능과 무관하게 이들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로부터 나타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에 주목하는 견해가 있다. 이 주장에 따르면 리얼돌은 포르노 판타지의 물질적 구현이자 공감각적 재현이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의 성적 취향은 자위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축소된다. 성 행위에 의해 인간은 성별과 무관하게 욕구 충족만을 위한 도구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또한 상대방의 존재론적 지위나 성적 취향을 실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오직 사용자 자신의 욕망만을 실재하는 것으로 여기는 태도가 리얼돌에서 재현된다고 그들을 말한다. 이처럼 성적 판타지를 구현하여 인간화된 리얼돌이 가지는 왜곡된 이미지가 인간에게 전이되어 인간의 사물화를 낳는다는 관점을 성적 유아론이라 한다.

리처드슨은 섹스로봇과 성매매가 갖는 유사성을 근거로 리얼돌이 인간의 사물화를 가속시키는데 일조할 것이라 주장한다. 사람을 쾌락을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서로 비슷하다는 것이다. 반면 레비는 리처드슨과 달리 성매매가 갖는 비합법적·비위생적 문제가 오히려 섹스로봇의 사용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실행 복잡성과 제약의 결여, 이성과의 관계 실패 경험과 같은 성매매의 주요 동기가 섹스로봇을 사용하는 이유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성적 유아론에 입각하여 리얼돌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섹스로봇의 사용이 단순히 사적 행위의 영역 안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르면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제작된 리얼돌은 사용자가 그 후기를 작성함으로써 전시욕, 과시욕 등을 불러일으키는데, 그리하여 사적 공간에서 행해지는 자위 행위가 점차 집단적 유희로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㉔ 리얼돌의 제작과 사용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의 주된 논변은 리얼돌이 성적 유아론을 구축하여 성적 대상의 욕망과 실재성이 제거하는데, 이것이 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 구조는 실증적 자료 없이 권위를 가진 누군가에 의해 부여된 상징적 의미에 기반한 논증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이 논증은 실제 인간이 보여주는 행위와 모습의 유사성에 근거하여 권위를 가진 존재가 유사성에 기반한 해석을 내놓은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나 리얼돌이 왜곡된 성규범을 상징하기 때문에 부

정적 결과를 초래한다는 논증에서 리얼돌이 그러한 규범을 가지게 된 원인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또한 행위나 모습의 유사성으로부터 그 의미가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다. 외형이 유사하다 하더라도 실제성이나 주체의 의미 부여에 따라 인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정적 의미의 상징성이 실증 자료에 의해 부정되어 반대의 의미로 탈바꿈하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사물이나 현상에 관한 해석이 다양하다는 점에서 퍼스의 기호적 의미는 주목할 가치가 있다. 기호적 의미는 임의적이고 우연적인 상징적 의미와는 다르다. 기호적 의미를 통한 기호적 해석은 기호와 지시 대상 사이에 물리적 경험과 실제적 연결에 기반하고 있다. 따라서 해석의 정당성은 언제나 실제적 경험 기반의 맥락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기호가 되기 위한 상징의 조건은 바로 이러한 것을 말한다.

4.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우리나라는 초기에 리얼돌이 신체의 사실적 재현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수입을 금지하였다.
- ② 개인의 사적 영역에 국가의 개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은 리얼돌의 제작 및 사용화에 반대할 것이다.
- ③ 자율적 행위자로서 지위를 확보해야만 인공물에게 성적 행위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④ 리처드슨은 레비와 달리 성매매와 성매매 로봇 간 유사성을 토대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 ⑤ 성적 유아론 찬성론자들은 리얼돌이 성적 행위를 위해 만들어진 도구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5. 글쓴이가 동의할 수 있는 주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공물이 인간의 인권을 침해하고 가치를 훼손한다면 그러한 인공물의 제작과 사용은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 ② 타자와의 상호작용이 있어야만 성 행위에 해당한다면 리얼돌을 사용한 자위행위는 그로부터 발생할 부정적 결과를 공유하지 않게 된다.
- ③ 한 사회에 문제가 되는 상징성은 경험이 가능한 실증적 근거의 토대 위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 ④ 상징은 사회문화적 합의에서 생성되므로 모든 상징이 실증적으로 입증 가능한 것은 아니다.
- ⑤ 리얼돌의 상징성에 관한 판단은 경험과 무관하게 기호적 해석을 통한 기호적 사실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제시된 사례를 평가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사례 A: 1950년대 포렌족은 이상한 질병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 병은 신경세포가 파괴되어 근육이 마비되고 온몸에 경련이 일어나는 것이 특징이었다. 다수의 환자들은 얼굴 근육을 마음껏 쓰지 못하여 숨지게 되었다. 1976년 이 병을 조사한 결과, 동종이 동종을 음식으로 섭취하였을 때 발생하는 광우병의 한 종류임이 밝혀졌다. 포렌족은 1980년대부터 전해오는 특이한 풍습이 있었는데, 그것은 가족이 사망할 경우 그 시체를 부족끼리 나눠먹는 것이었다. 이러한 행동의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의 시체를 먹으면 그의 생전 기억과 영혼을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하지만 질병의 원인을 알게 되자 이들은 더 이상 이러한 장례 문화를 지속하지 않게 되었다.

사례 B: 북, 행운이라는 뜻의 ‘하켄크로이츠’는 수천 년부터 사용되어 온 산스크리트어이다. 대표적으로 스칸디나비아·게르만 문화권에서는 긍정적이고 신성한 기호로 여겨져 태양 숭배 문양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20세기 초반, 히틀러는 이를 나치당의 문양으로 공식적으로 채택함으로써 투쟁하는 사람의 승리를 의미하는 하켄크로이츠는 게토 강제 이주, 아우슈비츠 학살 등과 함께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으며, 하켄크로이츠를 휘두른 권력의 기억은 대중들에게 강력히 각인되었다. 이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럽 전역에서는 하켄크로이츠를 대량학살 및 파시즘을 띄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심지어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에서는 법적으로 그 사용을 금지하기도 하였다.

- ① 식인 풍습이 망자와의 정신적 연대와 애도의 상징으로 기능했다는 데서, A에서의 초기 상징이 갖는 의미가 긍정적임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② 하켄크로이츠가 투쟁하는 사람의 승리를 나타내는 나치당의 문양으로 쓰였다는 데서, B에서의 하켄크로이츠는 20세기 초반을 기점으로 더 이상 상징이라 부를 수 없겠군.
- ③ 질병에 대한 병리학적 관계가 드러나 기존의 풍습이 폐기되었다는 데서, A는 ㉠과 마찬가지로 실제성이나 주체의 의미 부여에 따라 인식이 달라진 사례로 볼 수 있겠군.
- ④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부 국가에서 하켄크로이츠를 부정적으로 바라본 데서, B는 ㉠과 달리 실제 사건이 상징을 고정화한 사례로 해석할 수 있겠군.
- ⑤ A와 B는 ㉠과 달리 유사성에 기반하여 부여된 상징적 의미가 실증적 증거를 통해 제거된 사례에 해당하겠군.

[7~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화장품에는 항산화나 수분 유지 역할을 하는 기능성 성분이 들어간다. 그러나 피부는 외부로부터 보호막이 있어, 유효성분이 피부 깊숙이 잘 스며들지 않는 문제가 있다. 투과전달체는 피부 속 필요한 위치에 성분이 도달하도록 돕는 물질 중 하나이다. 입자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피부 세포들 사이로 침투가 용이해지기 때문에 투과전달체 개발에는 나노기술이 적극 도입되고 있다. 투과전달체는 그 이외에도 유효성분의 분해를 막아 효능을 가능한 한 오래 유지시켜 안정화 한다든지, 유효약물의 방출속도를 조절함으로써 그 효과를 장시간 동안 유지하는 등 다양한 용도로 쓰이고 있다.

화장품은 일상용품으로 무엇보다 안정성이 중요시된다. 따라서 화장품에는 의약품처럼 화학적으로 성분을 피부에 침투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피부에 친화적인 지질을 토대로 하는 전달체가 주로 사용된다. 대표적으로 인지질 이중층 구조에 유효성분을 포집시켜 캡슐화한 리포솜이 있다. 리포솜 막의 유연성을 높여 ㉠ 변형된 리포솜도 있다. 에쏘솜이나 트랜스퍼솜과 같은 투과전달체는 에탄올과 같은 계면활성제를 포함하여 변형이 쉽게 일어나는 막의 구조를 가진다. 이들은 크기가 큰 유효성분도 효과적으로 피부 내부로 투과되도록 한다.

리포솜은 포스파티딜 콜린으로 불리는 인지질이 이중층 막을 형성하여 물에 분산된 상태로 존재한다. 지질의 일종인 이 인지질은 양이온성을 띠기 때문에 PH농도 변화에 불안정하고 화장품 물질로는 폭넓게 사용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리포솜 외에 지질을 기반으로 한 ㉡ 다른 투과전달체로는 고체지질입자와 지질담체입자가 있다. 고체지질입자는 리포솜에 비해 물리·화학적 안정성이 뛰어나 유효성분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하지만 고체지질입자를 구성하는 고체지질은 매트릭스 형태의 결정구조를 이루고 있어 유효성분을 담을 공간이 적고, 시간에 따라 유효성분이 매트릭스로부터 유출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체지질에 오일과 같은 액체지질을 섞은 지질담체입자는 매트릭스의 결정화를 불안정하게 만든다. 이로써 유효성분의 캡슐화 효율이 향상되며, 시간이 지나면서 유효성분이 빠져나가는 속도를 줄일 수 있다. 이외에도 지질담체입자는 열과 빛에 대한 내성이 높아 유효성분이 산화되거나 분해되는 현상을 방지한다.

㉢ 세라미이드는 피부의 각질층에서 가장 중요한 지질 성분 중 하나로서 피부세포 간 지질층을 형성하여 수분 손실을 막고, 피부장벽을 복원시키는 기능을 담당한다. 이는 본래 피부에 자연적으로 존재하지만 아토피나 건선과 같은 다양한 피부질환 치료를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다. 나이 또는 여러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피부 내 세라미이드의 농도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라미이드를 이용한 치료는 간단하지 않다. 세라미이드는 기본적으로 결정성이 매우 강한 난용성 물질로, 약의 제형에 세라미이드가 함유되면 겔화 현상이 발생하면서 제형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화장품 산업에서는 세라미이드의 농도를 소량으로 조절하거나 세라미이드에 인지질과 여러 물질을 첨가하여 적절히 혼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7.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유효성분을 피부 내부로 침투시키기 위해서는 그 입자의 크기가 작아야 한다.
- ② 의약품은 화장품에 비해 대부분 피부에 친화적인 유효약물로 구성되어 있다.
- ③ 인지질 이중층 구조를 가지는 에탄올은 막의 유연성을 높이는 유효성분 중 하나이다.
- ④ 지질담체입자는 고체와 액체 지질 간 비율에 따라 유효성분의 방출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 ⑤ 세라미이드를 통한 치료는 피부를 이루는 세포 내부에서 수분 손실과 피부장벽 약화를 막는다.

8. ㉠, ㉡, ㉢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계면활성제보다 막의 변형이 쉽게 일어난다.
- ② ㉠은 ㉢에 비해 화장품 약의 제형에 제약없이 사용된다.
- ③ ㉡은 ㉠과 달리 지질을 그 구성성분으로 갖는다.
- ④ ㉡과 ㉢은 모두 유효성분의 결정화를 불안정하게 한다.
- ⑤ ㉠, ㉡, ㉢은 모두 화학적 방식으로 피부장벽에 침투한다.

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세라미드(CER)와 인지질(HPC)을 혼합하게 되면 두 지질 간 친화성에 의해 자가회합 공동구조체가 형성된다. <실험>에서는 유효성분의 산화에 대한 안정화 효과를 연구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지질담체입자를 제조하였다. 실험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 <실험>: 세라미드, 고체 상태의 인지질, 액체 오일, 계면활성제를 준비한다. 이들을 열로 녹이고, 물을 넣어 쥘처럼 만든 뒤 초음파로 잘게 나눠서 나노 크기의 입자로 만든다. 이후 여러 종류의 유효성분을 포집시키고 CER과 HPC의 비율을 달리하여 물질 ㉠~㉢를 제조한다.(단, 산화 안정성은 그 정도에 따라 1에서 10까지를 기준으로 점수를 매겼으며, 제시되지 않은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물질	산화 안정성	CER:HPC 혼합 비율	항산화 기능
㉠	2.5	1:1	x
㉡	8.5	2:3	o
㉢	5.5	5:2	o

<표>

- <결론>: 실험 결과, ㉡가 유효성분의 방출속도가 가장 느렸고, 산화 안정성은 가장 뛰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의 경우, 약의 제형이 불안정해져 화장품 제조에 부적합한 물질로 판명되었다.

- ① 항산화 기능은 세라미드와 구별되는 유효성분에 의한 작용으로부터 기인한다.
- ② ㉠은 에쏘솜에 비해 PH농도 변화에 안정적이고, ㉡보다 유효성분의 캡슐화 효율이 적다.
- ③ ㉡는 고체지질입자에 비해 매트릭스 결정화 정도가 낮고, ㉢와 마찬가지로 수분 유지를 돕는 유효성분이 포함되었다.
- ④ ㉢는 일반적인 리포솜에 비해 막의 유동성이 높고, ㉠보다 산화 안정성이 높아 유효성분의 방출속도가 낮다.
- ⑤ ㉠, ㉡, ㉢는 모두 제조 과정에서 투과전달체 개발을 위한 나노 기술이 적용되었다.

[10~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원형 담론이란, 특정 인물이나 사건을 본질적 출발점으로 상정하여 그 의미를 구성하는 일을 말한다. 국가의 정체성 확립은 흔히 역사의 출발점으로부터 시작되기에 단군 담론은 한반도의 주요 주제로 설정되고는 한다. 단군에 대한 해석은 관점이나 입장에 따라 그 평가나 규명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종교와 역사 방면에서 단군 연구가 이루어진 반면, 북한의 단군 연구는 주로 고고학을 기반으로 진행되었다.

분단 직후, 북한에서의 단군 논의는 대부분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하였다. ㉠ 다수 의견은 단군을 실제로 간주하거나 신비화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그 중 백남운은 단군 신화를 근거로 민족의 기원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계급사회 이후 형성된 단군 신화가 지배-피지배 관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데올로기라 주장했다. 또한 신화의 내용에서 단군이 원시귀족인 남계추장의 호칭에 불과하다는 것에 천착하여 단군 신화를 단순한 원시적 계급의 이데올로기로 해석하였다. 반면 고조선 역사정립을 위해 단군의 역사를 인정하는 ㉡ 소수 의견도 제시되었다.

㉢ 철학적 사유를 바탕으로 단군의 기원을 찾는 학자도 있었다. 가령 ㉣ 최봉익은 만물의 근원을 물질로 보는 유물론에 근거하여 단군을 실존인물이라 주장했다. 이들은 북학 철학이 유물론과 관련론 혹은 진보와 반동의 대립으로 전개되었다는 투쟁의 역사를 강조한다. 투쟁의 역사는 모든 사회가 계급투쟁의 역사라는 마르크스주의에 근거한 것인데, 특히 진보와 반동의 구분은 고대 철학에서 시작되었다고 그들은 말한다. 이들은 『한서』에 언급된 고조선의 범금(犯禁) 8조를 통해 고조선에서 사유재산의 소유와 노예의 존재를 유추하고, 이것이 착취계급의 지배를 지지하는 수단이라 보았다. 착취계급이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신적 존재나 정신적 실재를 만들어냈는데 이로부터 관념론이 발생했으며, 진보적 노예소유자 계급에 의해 유물론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자연신 숭배사상과 하늘신 숭배사상은 모두 관념론적 세계관을 드러내는 단군 담론이다. 자연신 숭배사상의 경우, 단군 신화에 등장인물인 풍백, 우사, 운사 등의 자연신이 환인의 신하로 소개됨으로써 신의 세계에도 위계가 형성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게다가 이 질서는 환웅의 아들인 단군이 세운 인간 세계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한편 하늘신 숭배사상은 유일한 신적 존재인 하늘신이 세계의 모든 요소를 창조하였고, 하늘신에 의해 환웅이 지상으로 내려왔으며, 웅녀가 임신하여 단군이 탄생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하늘신은 인간의 운명도 주재하는 존재이기에 인간계의 최고 지도자들은 하늘신으로부터 권력을 부여받아 지배의 세습과 강화를 확보할 수 있었다.

1989년 북한에서는 김일성 민족론이 등장하면서 단군 담론 연구가 중요하게 취급되기 시작한다. 특히 1993년 단군릉 발굴사업을 기점으로 고조선과 단군에 관한 연구 성과가 대폭 늘어났다. 단군릉 발견을 통해 비로소 학술 담론은 단군이 지닌 상징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즉, 한민족의 서사를 가진 존재이자 최초로 국가를 세운 지도자로서 단군이 재조명된 것이다. 이러한 단군의 표상에 영웅적 이미지가 결합됨으로써 단군은 수령의 세습계승을 정당화하는 장치로 사용되었다. 이처럼 단군이 수령의 형상으로 호명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새로운 담론들이 생겨났다. 영웅적 형상을 강조하는 선인사상과 도덕적 사상의 일종인 홍익인간과

단군겨레사상이 그러하다.

선인사상에서 선인 개념에 대한 논의는 신채호로부터 시작된다. 그에 따르면 선인은 대회를 통해 선발되는데, 선발된 선인은 학문뿐만 아니라 무술을 익혔다고 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국가의 환란을 구제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받쳐 싸웠는데, 이러한 정신은 고구려의 '선배', 신라의 '화랑'으로 계승되었다고 말한다. 신채호는 그 가운데 신분사회인 고구려에 주목하여 선배가 다양한 직업과 신분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북한에서 선인은 무신론 사상으로 이해되었다. 여기서 무신론은 자연에 대한 유물론적 이해에 바탕을 두고 있는 사상이다. 선인사상 제창가들은 선인왕검으로서 단군이 뛰어난 자질과 품격을 가졌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있었다고 보았다.

홍익인간사상은 북한 철학계에서 보수적인 노예소유자계급의 반동을 반대하는 신흥노예소유자계급이 제기한 정치사상으로 소개되고 있다. 또한 홍익인간은 민본주의에 의거하여 통치자는 인민들에게 이익을 주는 은혜로운 존재로, 피통치자는 그 은혜를 받기 때문에 계급 질서가 유지되었다고 본다. 진보적인 사상으로는 홍익인간사상 외에 단군겨레사상도 있다. 이 사상은 기본적으로 단군을 민족의 시조로 숭상한다. 북한에서는 이를 북한민족이 단군의 후손이라는 정체성을 통해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시키는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

10. 북한에서 단군 논의에 대한 전개 양상을 요약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단군이 서사를 가진 실존 인물이라는 해석은 소수 의견에 불과하였으나, 북한의 정치이념에 따라 그 중요성이 부각되어 북한 민족사의 정통성 계보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되었다.
- ② 단군을 신비화하는 견해에 대한 반대 여론이 형성되었고, 이 견해가 계승되어 북한 민족의 유구한 혈통을 강조하는 독자적인 노선으로 이어졌다.
- ③ 초기에는 단군 신화를 북한의 원형 담론으로 고려하지 않았으나, 단군릉 발굴 이후에 비로소 단군의 서사를 고조선의 역사와 연계하여 설명하였다.
- ④ 실제 인물로 생각되었던 단군의 존재가 여러 의문점에 부딪히자, 철학적 사유에 기반한 다양한 해결책이 등장하게 되었다.
- ⑤ 단군 담론을 유물론적으로 바라보는 시각과 그렇지 않은 시각이 끊임없이 투쟁하는 과정에서, 관념론적 시각의 일방적인 승리로 귀결됨으로써 단군 담론 또한 그에 맞게 변용되었다.

1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관해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단군 신화에는 양적 존재인 하늘과 음적 존재인 땅의 결합 속에서 우주가 발생 그리고 발전한다고 본 음양론적 사고가 반영되어 있다. 신화에서 단군의 출생은 인간인 환웅과 곰녀가 혼인하여 새로운 생명을 낳는 방식으로 구성되고 있다. 여기서 단군의 부모로 등장하는 환웅과 곰녀의 실체는 천신과 지신이다. 천신과 지신이 결합하여 생명이 탄생한다는 도식에는 하늘과 땅의 결합, 양적 존재와 음적 존재의 상호작용에 의해 생명, 나아가서 우주만물이 생성된다는 사고방식이 깃들여있다.

- ① 만물의 생성 원리를 단군에 적용하고 있다는 데서, <보기>의 주장은 ㉠의 입장과 상충하지 않겠군.
- ② 실존하는 인간과 인간이 만나 생명을 낳았다는 데서, <보기>의 주장은 ㉡의 입장과 상충하겠군.
- ③ 자연현상을 철학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한 데서, <보기>의 주장은 ㉢의 입장과 상충하겠군.
- ④ 생명의 탄생이 신적 존재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데서, <보기>의 주장은 ㉣의 입장과 상충하지 않겠군.
- ⑤ ㉡ 중 일부는 ㉢와 마찬가지로 <보기>의 관점을 유물론적 관점에 포섭시킬 수 없다고 간주하겠군.

12.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백담운은 사회를 계급투쟁의 역사라고 보는 관점에 대해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 ② 노예를 소유한 계급으로부터 유물론적 사유가, 그렇지 못한 계급으로부터 관념론적 사유가 발전되었다.
- ③ 자연신 숭배사상과 하늘신 숭배사상은 신의 세계에 서로 다른 위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 ④ 신체호는 선배가 선인과 달리 귀천의 구별 없이 학문과 기술로써만 발탁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 ⑤ 홍익인간사상은 민본주의를 지향함으로써 인민들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지배층의 정치 이념을 가리킨다.

[13~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형벌 중 가장 강력한 유형인 사형의 역사는 오래되었다. 그 역사는 인류 역사상 오래된 법전인 함무라비 법전, 심지어 그보다 수세기 앞선 우르남무 법전에서도 발견된다. 고대에는 사형을 신의 뜻으로 받아들였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응보주의가 보편적이었던 예전과 달리 사형제도의 구조가 교육형으로 전환되면서 찬반 논쟁이 시작되었다. 특히 언론에서 잔혹한 흉악범죄가 그 그림자를 비추자, 사형제도의 존폐에 대한 여론은 현재까지도 그 열기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능지처참과 같은 잔혹한 방식의 사형은 폐지되었지만 여러 특별형법에서 사형이 형벌의 수단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헌법규범 위반 여부에 대해 사형제도의 합헌성을 직접 다룬 헌법재판소의 판례도 적지 않다. 한편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이나 일본 등 오늘날에도 사형을 시행하는 사형시행국이 있다. 아무래도 흉악적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 또는 그 유가족의 응보적 감정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를 근거로 사형의 정당성을 인정하자는 주장도 적지 않다. 하지만 범죄자에 대한 교육 방식 위주의 근대적 형벌을 전면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다. 이러한 체제가 오래 지속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말이다. 결국 사형에 관한 문제는 형벌의 기능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에 따라 판단해야 할 문제로 볼 수 있다.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에 대해 범죄자의 생명도 빼앗아야 한다는 응보적 정의관은 ㉠ 사형 찬성론의 주된 논거 중 하나이다. 사형 찬성론자들은 사형이라는 형벌이 갖는 일방예방적 효과를 기대한다. 이에 대해서는 범죄와 형벌 사이에 작용하는 변수들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통계적인 입증이 어려워 범죄에 대한 억제 효과는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사형 찬성론은 또한 사형이 잠재적 피해자들을 안심시킬 수 있기에 인간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형을 통한 영구격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형이 종신형보다 소요되는 비용이 더 크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형집행비용이 누가 더 큰가에 대해 객관적인 실증자료가 부족하다는 반론이 제기되었다.

근대 형사법 체계의 관점에서 제기된 ㉡ 사형 반대론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권을 박탈할 수 있는가에 대한 본질적 문제를 논의에 포함시킨다. 사형 이외의 방법으로 동일한 목적을 이룰 수 있다면 사형제도를 존치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이 주장은 태아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낙태에 관한 문제와 충돌할 여지가 있다. 최근에 이르러 낙태 허용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일관성 측면에서 모순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법률을 제정하는 국회와 이를 적용하는 법원이 구분되듯이 헌법제정자와 헌법개정자 그리고 헌법해석자의 역할 또한 구분된다. 헌법제정자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은 초기상태에서 헌법을 제정하므로 헌법의 제정한계는 개정한계보다 최소한으로 인정되는 반면 헌법의 해석한계는 이것들보다 폭넓게 인정된다. 또한 헌법의 해석 가능성은 법률의 해석에 비해 넓게 열려 있다. 헌법해석을 통한 헌법의 변천은 규범과 현실 간 괴리를 좁히는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헌법의 해석한계에는 헌법의 기본이념과 명문규정도 포함된다. 그러나 ㉢ 헌법의 명문 규정을 벗어나는 해석은 절대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법학자 콘라트 헤세가 말했듯이

헌법해석의 가능성이 끝나는 곳에서 헌법개정의 문제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13.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우르남무 법전이 쓰인 시대에서는 사형존폐에 대한 견해가 일치되어 있었다.
- ② 사형이 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사형시행국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 ③ 형벌제도 집행을 옹호하는 견해는 대체로 사형제도를 옹호론적 관점에서 바라본다.
- ④ 사형제도의 존치가 바람직한지에 관한 평가가 헌법재판소에서 논의된 적이 있다.
- ⑤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헌법의 제정한계는 법률의 개정한계에 비해 더 넓게 인정된다.

14.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형제도 도입에 따른 범죄율이 유의미하게 낮아진 것이 통계적으로 입증되었다면, ㉠의 입장은 강화된다.
- ② 범죄자를 감형이나 가석방없이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방식으로라도 범죄에 대한 보복을 달성할 수 있다면, ㉡의 입장은 강화되지 않는다.
- ③ 사형을 통한 인간의 생명권 박탈 문제를 단순히 비용의 문제로만 환원시켜서 설명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관점에 대해, ㉠은 동의하지 않고 ㉡은 동의한다.
- ④ 인간 생명의 절대적 보호를 이유로 사형을 위헌으로 판단할 경우 낙태의 허용 범위를 축소해야 하지 않겠냐고 ㉡은 비판받을 수 있을 것이다.
- ⑤ 현대의 형사사법에서 응보의 요소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에 있어서, 국민들의 법감정이 이를 용인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하지 않겠냐고 ㉠은 ㉡을 비판할 수 있을 것이다.

15. ㉠의 직접적인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헌법제정자는 사형제도가 위헌이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지 사형제도의 찬반에 있어서는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 ② 법률을 제정하는 자와 헌법을 제정하는 자의 역할 구분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 ③ 헌법 해석자가 명문 규정을 벗어나는 순간 헌법 제정의 가능성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 ④ 헌법 개정자의 역할이 강조될수록 현실과 규범 사이의 격차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 ⑤ 헌법조문이 갖는 의미가 소멸되어 헌법을 해석하는 자가 헌법을 개정하는 자처럼 되기 때문이다.

* 확인 사항

- noqeli의 허락 없이 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 복제, 배포, 출판, 전자출판 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